

펼 펼쳐나는 한국, 몸풀듯 2연승

여자핸드볼 세계주니어선수권대회

개막전 中 제압 이어 콩고 37대 18 대파

제 17회 세계주니어선수권대회 사상 첫 우승에 도전하는 20세 이하 여자핸드볼 대표팀이 2연승을 달렸다.

한국 대표팀은 18일 광주 영주체육관에서 열린 예선 B조 2차전 경기에서 콩고민주공화국을 37-18로 따돌리고 승리를 거뒀다.

앞선 17일 대회 개막전에서 34-19로 중국을 제압했던 대표팀은 2연승 행진으로 우승 고지를 향한 순항을 이어갔다.

한국은 최약체 콩고를 맞아 팀의 간판 유은희와 이은비를 뺀치에 앉히는 여유를 보이며 전반부터 콩고를 압도했다.

정유라의 득점으로 공격을 개시한 한국은 7m 스로로 연속 득점에 성공하면서 8-2가

지 달아났다. 남영신은 골키퍼와 1대1로 맞선 상황에서 팀의 10번째 득점을 만들어내는 등 한국은 선수들의 고른 활약과 골키퍼 박소리의 선방을 더해 20-7로 전반을 마쳤다.

한국은 후반 시작과 함께 3골을 내리 기록하면서 일찌감치 승세를 굳혔다.

김선혜의 골을 시작으로 김은경과 김선화가 7m 스로에 성공하면서 23-7까지 달아났다. 후반 김은경과 김선화까지 득점에 가세하면서 한국은 19점 차로 콩고를 물리쳤다.

정유라와 함께 6골을 터트린 김은경은 경기 최우수 선수에 선정됐다. 조호비도 5골을 더하며 팀 승리를 이끌었다.

콩고는 주포 까린 바비나가 6골을 넣으면서 분전했으나 잇단 패스 미스와 골 결정력 부족으로 무릎을 꿇었다.

한국은 17일 열린 중국과의 개막전에서도 34-19 대승을 거뒀다. 전반 중국의 거센 방어에 막혀 고전했던 한국은 후반 공격의 핵심 유은희와 이은비의 득점포를 앞세워 34-19로 중국을 따돌리고 승리를 확정지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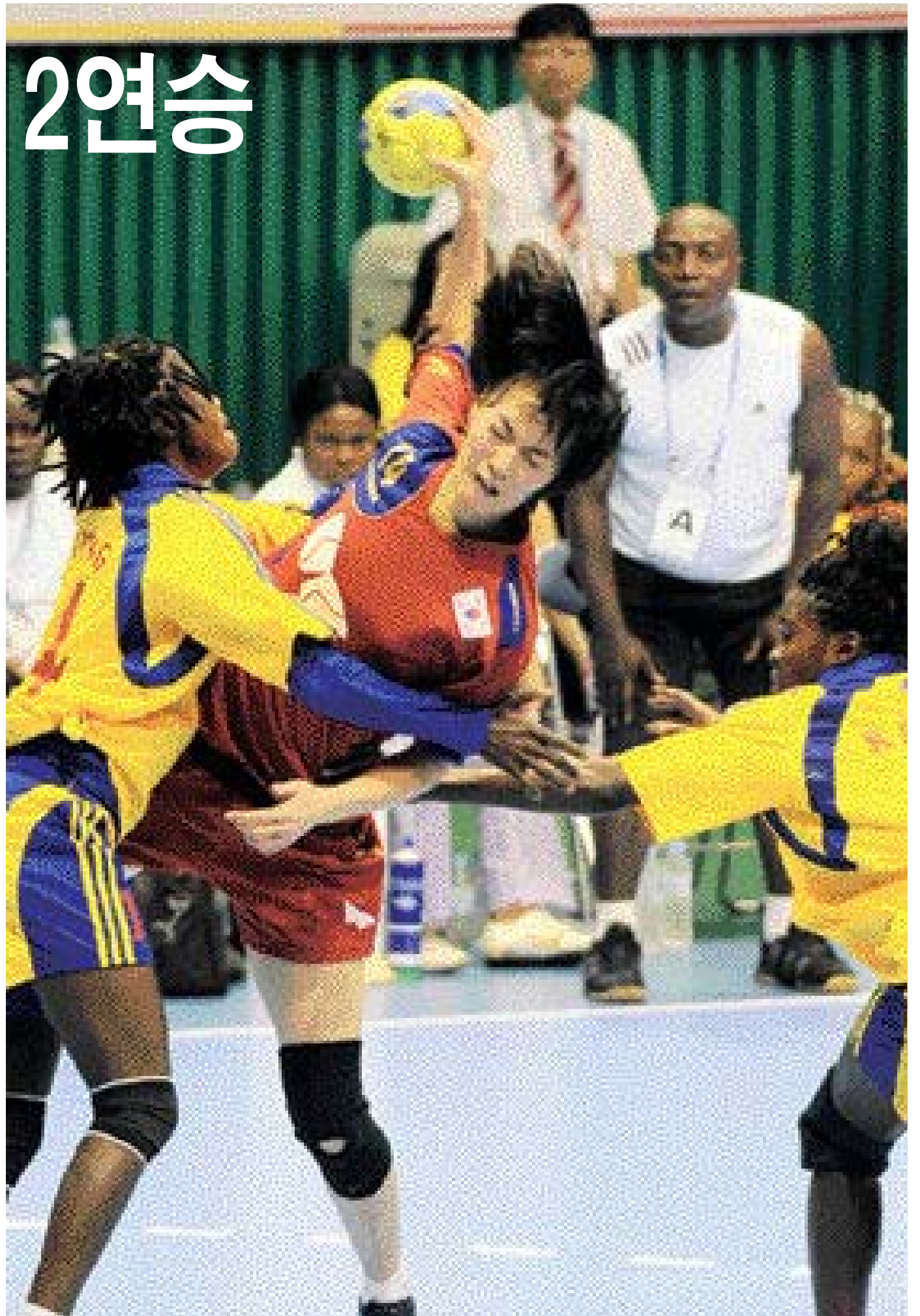
이은비는 6골을 터트리며 경기 최우수 선수에 선정됐다.

약체팀을 맞아 2연승을 거둔 대표팀은 19일 오후 2시10분 같은 장소에서 유럽의 강호 크로아티아와 3번째 대결을 갖는다.

한편 이번 대회는 6개국씩 4개 조로 나뉘어 예선을 벌인 뒤 각 조 상위 3개 나라가 본선에 올라 다시 조별리그를 갖고 4강 진출팀을 가리게 된다. 대회 세 차례 준우승을 차지했던 한국은 1985년 이후 25년만에 인방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에서 우승에 도전한다.

정유라의 득점으로 공격을 개시한 한국은 7m 스로로 연속 득점에 성공하면서 8-2가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막을테면 막아 봐 한국 정유라가 18일 영주체육관에서 열린 제17회 세계주니어핸드볼선수권대회 콩고와의 예선 경기에서 수비수들을 뚫고 슛을 날리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구름 관중 첫 경험... 적응 안됐어요”

■ 한국, 개막전 고전 왜? 긴장하고 들떠...후반 여유 찾아 집중

‘관중 때문에...’

20세 이하 여자핸드볼 대표팀이 17일 광주에서 개막한 주니어선수권대회에서 한 수 아래 전력의 중국을 상대로 대회 첫 승을 장식했다.

34-19의 대승이었지만 한국은 전반전 중국과 팽팽한 힘겨루기를 했다. 중국의 장신벽에 막힌 대표팀은 어렵게 경기를 풀어나가며 전반전을 11-8로 마쳤다.

주니어대표팀을 이끌고 있는 백상서 감독이 감독들과의 대결에 대비해 비장의 카드로 아껴둔 유은희(20·백산건설)까지 투입할 정도로 살얼음 승부였다. 하

지만 한국은 후반 들어 공격적인 승부로 중국의 수비를 흔들며 34-19로 경기를 마무리했다.

전반전 부진에 대한 선수단의 분석은 ‘관중’이었다.

첫날 경기에서 6골을 넣으며 한국팀 MVP로 선정된 이은비(20·부산시설관리공단)는 경기 끝난 뒤 “이렇게 많은 관중들 앞에서 경기를 해본 것은 처음이었다. 긴장도 많이 하고 적응이 안돼서 전반전 박빙의 승부가 벌어졌다”고 밝혔다.

‘우생순’ 신화에도 불구하고 비인기종목으로 꼽히는 핸드볼 선수들에게는 관중석 풍경이 낯설었다는 설명이다. 이날 개막전에는 5천 여명의 관중이 찾아 ‘대한민국’을 연호했다.

이은비는 “팬들이 많이 와서서 우리 까리 좋아하기도 하고 들뜨기도 했다”면서 “후반에 긴장이 풀려 경기에 집중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예선 두 번째 콩고와의 경기가 열린 18일에는 17일보다 적은 1천여 관중이 찾았다. 한국은 21일 오후 2시10분 크로아티아와 B조 예선 세 번째 대결을 갖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지소연, 女 월드컵 8강 썼다

2경기 연속 멀티골 활약...가나에 4대2 역전승

‘준비된 골잡이’ 지소연(19·한양여대)이 2010 국제축구연맹(FIFA) U-20 여자월드컵에서 두 경기 연속 멀티골을 작렬하며 한국의 사상 첫 8강 진출을 이끌었다.

지소연은 지난 17일(한국시간) 밤 독일 드레스덴 루돌프-하르빅 경기장에서 치러진 가나와 대회 조별리그 D조 2차전에서 0-1로 지고 있던 전반 41분 동점골에 이어 3-2로

반을 펼치던 후반 42분 쐐기골을 터트리며 4-2 완승의 주인공이 됐다.

이날 2골을 폭발시킨 지소연은 스위스와 1차전에서 기록한 헤트트릭(3골)을 포함해 5골을 기록, 미국의 시드니 로로스(4골)를 1골 차로 누르고 득점순위 1위를 지켰다.

한국은 후반 11분 만에 골을 허용했지만 후반 17분 김나래의 프리킥골과 후반 25분 김진영의 골을 앞세워 3-2로 재역전했다. 후반 42분에는 지소연이 헤딩슛으로 4-2승리를 이끌었다.

한편 브라질을 1-0으로 제압했던 북한 여자축구대표팀도 17일 조별리그 두 번째 경기에서 뉴질랜드에 2-1로 승리하며 사실상 8강 진출을 확정지었다.

지소연은 ‘득점 본능’을 표출하며 위기의 순간에서 역전승의 발판을 만들었다. /연합뉴스

지난 2006년 10월 피스퀼라에서 당시 15세 8개월로 역대 남녀 대표팀을 통틀어 가장 어린 나이에 A매치에 데뷔했을 만큼 일찌감치 여자축구 무대에서 두각을 나타낸 지소연은 말 그대로 ‘준비된 골잡이’였다.

2006년 12월 아시안게임에서 대만을 상대로 남녀 대표팀을 통틀어 한국 축구 A매치 최연소 득점 신기록(15세 293일)을 세웠던 지소연은 20세 이하 대표팀의 공격수로 나서 조별리그 1차전부터 헤트트릭을 기록했다.

이날도 ‘지소연의 힘’이 발휘된 한판 승부였다.

전반 28분 중거리포로 선제골을 내준 한국은 조력적이 흔들리며 고전했지만 전반 41분 세트피스 상황에서 문전으로 올라온 볼을 지소연이 쇄도해 동점골을 터트리 분위기를 바꿨다.

한국은 후반 11분 만에 골을 허용했지만 후반 17분 김나래의 프리킥골과 후반 25분 김진영의 골을 앞세워 3-2로 재역전했다. 후반 42분에는 지소연이 헤딩슛으로 4-2승리를 이끌었다.

한편 브라질을 1-0으로 제압했던 북한 여자축구대표팀도 17일 조별리그 두 번째 경기에서 뉴질랜드에 2-1로 승리하며 사실상 8강 진출을 확정지었다. /연합뉴스

막을테면 막아 봐

광주·전남 후반기 첫 승 사냥 실패

프로축구 K리그 이동국 ‘30-30클럽’ 가입

후반기 첫 승에 도전했던 광주 상무와 전남 드래곤즈가 나란히 0-1 패배를 기록했다. 광주 상무는 17일 창원축구센터에서 열린 경남 FC와의 경기에서 득점 1위 루시오에게 결승골을 내주며 0-1로 패했다.

0-0으로 팽팽하게 맞선 후반 12분 상무의 골문이 열렸다. 까밀로의 패스를 받은 경남의 ‘공격의 핵’ 루시오가 미드필드 정면에서 왼발 중거리슛을 날리며 정규리그 10번째 골을 성공시켰다.

서울월드컵경기장을 찾은 전남 드래곤즈도 FC 서울에 0-1로 졌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후반 20분 아쉬운 수비가 나왔다. 서울 공격상황에서 왼쪽 측면 크로스를 처리한다는 것이 전남 수비수 머리를 맞고 서울 골요한에게 연결됐다. 반대쪽 골포스트를 노린 고요한이 침착하게 왼발슈팅을 날리며 0-0의 균형을 깬다.

한편 전북 현대의 이동국은 한국 프로축구 통산 25번째로 ‘30(득점)-30(도움) 클럽’에 가입했다. 이동국은 17일 대전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대전 시티즌과 원정경기에서 1-0으로 앞선 전반 34분 로브레의 추가골을 도우며 통산 30도움을 기록했다.

1998년 포항에서 프로 생활을 시작한 이동국은 통산 230경기에서 93골 30도움을 기록하며 ‘30-30 클럽’에 이름을 올렸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안산주 JLPGA 우승

한국선수 통산 100승

안산주(23)가 일본여자프로골프(JLPGA) 투어 스탠리 레이디스 골프투너먼트(총상금 9천만엔) 우승을 차지했다.

안산주는 18일 일본 시즈오카현 도메이 골프장(파72.6천542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3라운드에서 3언더파 69타를 쳐 최종합계 6언더파 210타를 기록하며 이치히와 공동선두로 18홀 경기를 마쳤다.

한국 선수끼리 연장에 돌입한 승부는 연장 두 번째 홀에서 승패가 가려졌다. 안산주는 연장 두 번째 홀에서 6m 버디 퍼트를 넣어 그보다 짧았던 4.5m 버디 퍼트를 놓친 이치히를 물리쳤다.

우승 상금 1620만 엔을 보낸 안산주는 상금 랭킹 1위(5573만 엔)에 올랐다. 올해 JLPGA 투어 개막전인 다이킨 오픈 레이디스 우승 이후 시즌 2승째를 거둔 안산주는 JLPGA 투어 통산 한국 선수 100승의 주인공이 돼 기쁨이 더해졌다.

통산 100승은 구옥희(54)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부회장이 1985년 기본 레이디스에서 첫 우승을 따낸 이후 25년 만에 쌓은 위업이다.

한국 선수들은 올해 LPGA 투어 18개 대회 가운데 안산주, 박인비(22·SK텔레콤), 신지애(22·미래에셋), 전미경(28), 신현주(30) 등이 7승을 합작했다. /연합뉴스

‘1시민 1주갯기’... 광주상무 팬 사인회

오늘 오후 광주우체국 앞

광주 상무 선수단이 19일 오후 5시 광주시 동구 충장로 광주우체국 앞 광장에서 ‘찾아가는 팬 서비스 광주상무 팬 사인회’를 갖는다.

이날 사인회는 팬들의 성원에 보답하고 2011년 출범하는 광주시민프로축구단 ‘1시민 1주갯기’ 운동을 홍보하기 위

해 마련했으며, 주장 최원근을 비롯해 최성국·김동현·주광윤이 참가해 시민들과 함께 한다.

주장 최원근은 “광주시민구단 창단을 축하하며, 광주시민의 창단 열기에 동참하고 축구를 사랑해주는 팬들의 사랑에 화답하기 위해 시민주 청약 행사 및 팬 사인회에 동참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